

토양복원기술의 선진 동향과 시사점

천정용

한화환경연구소 환경경영연구팀

⇒ 요약 ⇐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

- 토양오염은 지하에서 일어나는 오염문제이므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되면 복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필요함
- 우리 나라에서는 폐광지대 그리고 공업단지 내 유류 저장시설 주변 토양이 중금속과 유기화합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오염토양 정화기술의 분류와 주요기술

- 오염토양 정화기술은 크게 비원위치 기술과 원위치 기술로 분류되며 각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다시 분류됨

(3) 주요 국가들의 토양 정화기술 보유 동향

- 29개국 360개 토양 정화관련 회사들의 관련 기술 보유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계 유수의 토양 정화관련 기업들은 비원위치 기술로는 열탈착법, 토양세척법, 경작법 그리고 원위치 기술로는 생분해법, 토양증기추출법을 주요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 토양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양환경보전법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토양 정화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복원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원위치 토양증기추출법, 생분해법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

가. 토양오염의 정의와 특성

-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 지하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이므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오염 범위와 정도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이 매우 어려움
- 이러한 비가시성과 관측의 어려움 때문에 대기나 지표수와 같은 가시적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 한번 오염되면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美환경청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98년 여름 현재 202개 오염현장에서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총 302개 현장에서 정화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평균 복원기간은 정화기술에 따라 약 13개월~19개월이었던 것으로 보고됨
- 토양의 오염은 그 속에 존재하는 생물과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며, 지하수의 오염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의 오염물질의 확산을 야기함
- 따라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생태계 오염이 발생함

나. 토양오염 현황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

- 1999년 환경부의 강원도 길곡광산 등 전국 10개 폐금속광산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광과 주변 지역 927개 시료채취 지점 중 40%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함
- 조사지역은 밭이 가장 많았는데, 벼, 고추, 무, 배추 등 일부 채소류에서 카드뮴, 납,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됨
- 또한, 부여 임천광산 인근 농경지, 경북 토현광산, 옥방광산, 금장광산 주변지역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의 전국 석유/유독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8,637개소 주변 토양에 대한 BTEX 오염도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토양이 유기화합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지역 중 137개소(1.6%) 주변 토양이 토양오염확인기준인 32 ppm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특히 토양오염대책기준인 200 ppm을 초과한 곳도 42개소에 달해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M&A 시 인수 대상 기업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실태, 대기·수질 오염배출실적, 폐기물 처리현황 등의 환경실사 보고서를 요구함
- 이 과정에서 대상 공장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드러나 복원을 요구하거나, 매매 가격을 대폭 줄이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함
- 환경영재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공장과 광산들이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여기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주변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고 함
-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오염토양 회복을 위해 막대한 복원비용을 지출하여 통일 비용의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함
- 기존의 토양오염 문제는 광산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첨단산업으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염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드라이클리닝, 도장공정, 주유소, 반도체 공장 등에서 누출되는 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염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엄격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군부대에서의 토양오염은 군부대의 이전 또는 폐쇄에 따라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 나라는 1994년부터 정부차원에서 토양정화기술을

-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오염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정화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일부 기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자체 소유의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를 시도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1980년에 수퍼펀드법을 제정한 이래로 1985년까지 20,766개의 유해지역을 찾아내고 507개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 대해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함
- 현재 국내 토양 오염부지에 대한 조사 및 정화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부지오염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열탕착법, 토양세척법, 경작법, 토양증기추출법, 생분해법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2) 오염토양 정화기술의 분류와 주요기술

〈표 1〉 상용화된 토양 정화 기술 분류

분류		오염토양 정화기술
비원위치 (Ex Situ) 기술	물리적 방법	소각법 (Incineration) 열탕착법 (Thermal Desorption) 토양증기추출법 (Soil Vapor Extraction) 분급법 (Mechanical Separation) 굴착폐기 (Excavation and Disposal)
	화학적 방법	토양세척법 (Soil Washing) 고형화 및 안정화 (Solidification/Stabilization) 탈염화법 (Dehalogenation) 용제추출법 (Solvent Extraction) 화학적 신화 및 환원법 (Chemical Reduction/Oxidation)
	생물학적 방법	경작법 (Landfarming) 생반응법 (Bioreactors)
원위치 (In Situ) 기술	물리적 방법	토양증기추출법 (SVE : Soil Vapor Extraction) 가열토양증기추출법 (Thermally-enhanced SVE) 차폐 및 반응벽체 (Containment/Reactive Walls/Barriers) 전기 개선법 (Electroreclamation) 매립 차폐법 (Landfill Cap)
	화학적 방법	토양세척법 (Soil Washing) 안정화 및 고형화 (Stabilization/Solidification)
	생물학적 방법	생분해법 (Bioremediation) 식물정화법 (Phytoremediation) 자연저감법 (Natural Attenuation)

자료: UN/ECE, ICS-UNIDO, "Compendium of Soil Clean-up Technologies and Soil Remediation Companies", 2nd Edition, 2000.

- 실행 위치에 따라 非原位置(Ex Situ)와 原位置(In Situ) 기술

로 나누어짐

- 비원위치 정화기술 : 오염토양을 오염지역으로부터 굴착 이동시켜 처리하는 기술이므로 일반적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처리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는 안됨
- 원위치 정화기술 : 오염 토양을 현장으로부터 이동시킴으로서 오염지역의 지반환경을 교란시켜 예기치 못한 오염의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염 토양의 제거와 이동 중 작업자가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나, 원위치 기술에 비해 오염지역 주변 지하수나 가주민에게 위험을 덜어주면서 빠르게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원위치 정화기술 : 오염 토양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술로 오염된 토양을 굴착 이동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주변 환경과 작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비원위치 정화기술에 비해 저렴한 편임
- 현장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분포와 이동의 복잡성 때문에 정화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현장 조사 자료가 필요함

(3) 세계 오염토양 정화 관련 기업들의 보유 기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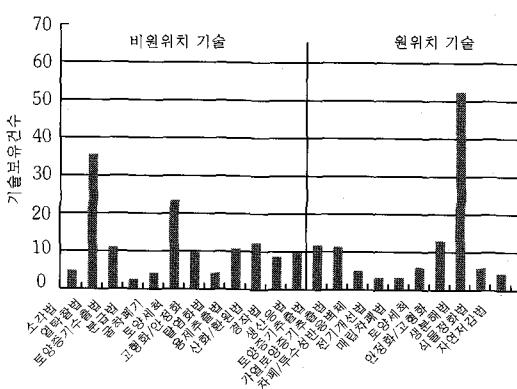
- 세계 토양 정화관련 기업들은 비원위치 기술로는 열탕착법, 토양세척법, 경작법을 그리고 원위치 기술로는 생분해법, 토양증기추출법을 주요 기술로 보유하고 있음
- 29개국 360개 토양 정화관련 회사들의 관련 기술 보유 동향을 분석한 것임

가. 북미

- 원위치 생분해법이 53건, 비원위치 열탕착법 35건, 비원위치 토양세척이 25건으로 전체 적용 기술 중에 44% 임
- 미국 197개社, 캐나다 10개社의 토양 복원 기술을 분석함
- 비원위치 기술이 54.6%로 원위치 기술과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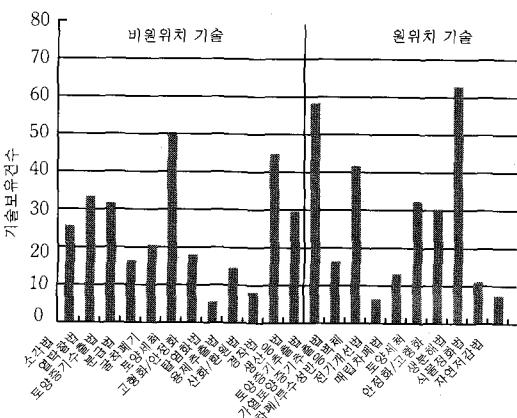
- 1998년도에 미국 오염현장에서 적용된 복원 기술을 살펴 보면, 비원위치 기술이 59%를 차지하고, 원위치 토양증기 추출법 178건, 비원위치 소각법이 141건, 비원위치 고형화 /안정화가 122건, 비원위치 열탈착법 55건, 원위치 생분해 법이 42건 순임
- 원위치 생분해법의 경우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 및 기술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화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1> 북미의 토양 정화기술 도입 동향



나. EU

<그림 2> EU의 토양 정화기술 도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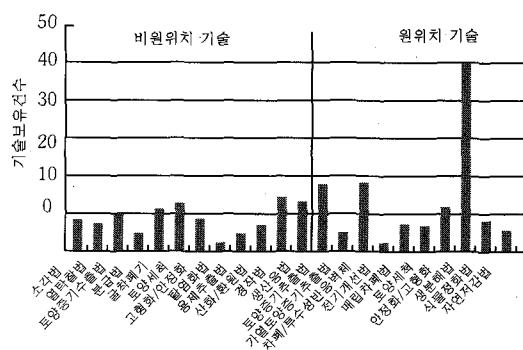


- 원위치 생분해법이 65건, 원위치 토양증기추출법이 59건, 비원위치 토양세척이 50건, 비원위치 경작법이 44 건으로 전체 보유기술 중 36% 임
- 독일 162개社, 프랑스 38개社, 벨기에 30개社,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의 총 307개社의 보유기술을 분석함
- 비원위치 기술이 53%로 북미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특히 원위치 차폐/투수성반응벽체 기법이 42건으로 경작법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함

다. 동유럽

- 원위치 생분해법이 40건, 차폐/투수성반응벽체가 19건, 토양증기추출법이 18건으로 전체 보유기술 중 35% 임

<그림 3> 동유럽의 토양 정화기술 도입 동향



- 슬로바키아 15개社, 체코 10개社, 폴란드 9개社, 알바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의 총 63개社의 보유 기술을 분석함
- 원위치 기술이 54%로 북미 그리고 EU와는 다른 경향을 보임
- 동유럽에서는 북미나 EU와는 달리 원위치 기법을 선호함

(4) 시사점

- 국가적으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유해물질 또는 유류 누출시

- 즉각적인 오염조사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해야 함
 - 토양오염은 비가시적이며, 한번 오염되면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부지의 재산 가치 또한 하락하기 때문임
- 토양환경보전법이 1996년부터 시행 중이고 토양오염문제가 site-specific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오염 현황과 우리 실정에 맞는 오염지역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매우 적음
- 우리 나라 지반 특성에 적합한 오염부지 조사방법의 정립과 체계적인 오염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 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부지 오염평가와 오염토양 복원 작업이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국립환경연구원의 우리 나라 토양 정화를 위한 예상투자액에 관한 자료를 보면, 1987년에서 2006년까지 약 8,062 억원에서 2조1,395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음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부지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오염방

지차원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앞으로의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의 조사 및 평가 그리고 정화기술의 발달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토양 정화 관련 기업들은 특히 생분해기법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정화 기간은 많이 소요되나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오염부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정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 이용함으로서 식물정화법과 함께 자연 친화적이라는 인식 때문임
- 기술 보유 빈도, 현장 적용정도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원위치 토양증기추출법, 생분해법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토양 복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정화기술이 매우 낙후 되어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외국의 기술동향을 파악 우리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한다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를 모집합니다.

- 어려운 현실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 주위의 따뜻하고 진솔한 삶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기술자료 및 기타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좋은 것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 했으면 합니다.

- 자격 : 회원 및 가족
- 접수 : E-mail 및 우편
- 문의 : 2638-0186(편집국)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도서상품권)를 드립니다.